



### 쿠바 혁명과 Afro-Cuban



[쿠바를 상징하는 체 게바라와 하바나 말레콘 해변]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아마야구, 그리고 중남미 허름한 뒷골목과 하바나(HAVANA) 부둣가의 낡은대는 파도, 흔히 쿠바(cuba)에 대한 선입관이자 알고 있는 전부이다.

필자도 모CF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연달아 찍어대던 유명 영화배우의 뒷배경이 바로 하바나의 파도치는 부둣가였음을 알았음에도 왠지 CUBA와 Afro-Cuban을 엮어내지는 못했다. 이제 소개하는 BVSC(Buena Vista Social Club)를 알게 되기 전에는 말이다.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자.

아메리카 대륙의 역사가 중세와 근대 유럽의 식민지로서 터전이자 신민명의 또 다른 발상으로의 역할이라고 논할 때, 필자는 이런 분류를 해본다. 이런 분류는 필연적으로 식민지 노동자로서의 노동요 내지는 슬픔을 전제로 한다.

아메리카를 크게 나누자면, 북미, 중미, 남미로 3등분을 할 수 있다. 북미의 대표는 미합중국의 뉴올리주 사탕수수밭의 원주민을 배경으로 블루스음악과 사교문화를 퓨전함으로 생성된 재즈(딕시랜드 및 스윙의 등장)라고 할 수 있다.

남미의 대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등 현지인들을 위주로 경쾌한 리듬을 강조시킨 라틴(latin), 레게(reggae), 보사노바(bossanova), 삼바(samba), 살사(salsa) 등을 들 수 있다.

북미, 남미 모두 유럽의 문화와 현지의 시대적인 문화가 조화를 이뤄 발생했다고 한다면, 중미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시대적으로 북미(미합중국)의 큰 그림자에 가려져 있으며, 에스파냐의 식민지로서 아프리카인들이 토착인 못지않게 많이 거주했던 쿠바는 멕시코와 함께 북·남미와는 사뭇 다른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갖게 된다. 특히, 정치적인 배경은 고스란히 문화적인(음악적인) 토대를 만들게 된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내부]

1930년대 당시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Havana) 동부에는 카바레, 클럽 등 사교장이 번성했다. 이 전성기 시절 아프리카인들의 유희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는 쿠바음악은 당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지금 소개하고 있는 밴드의 시초)이라는 고급 사교클럽으로부터 시작되어, 당시 쿠바의 대표적 음악가들이 모두 이런 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란 포르투갈어로 “환영받는 사교클럽”이란 뜻이다]**

그러나, 쿠바혁명으로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담은 포크송이 주류를 이룸에 따라 쿠바의 전통음악은 뒤로 밀려났고,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을 비롯해 번성하던 하바나도 쇠퇴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가져다준 경제적인 공황은 고스란히 음악인들의 몫이었다. 그들은 구두닦이며, 발레리나의 연주자, 뒷골목의 소심한 예술가로 전락하는 등 이곳에서 연주하던 음악가들도 뿔뿔이 흩어져 이후 30여 년간 쿠바음악은 침체기에 빠져든다. 하지만, 라틴(latin)과 레게(reggae), 심지어 보사노바(bossanova)처럼 상업적일수도 없었으며, 서정적인 멜로디보다 오히려 구슬픈 닛두리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쿠바음악은 Afro-Cuban이라는 새로운 사조로 재등장한다.

**Afro-Cuban 악기배치 특성과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미국의 기타리스트이자 레코딩 프로듀서인 R.쿠더가 번성했던 옛 클럽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인 명칭인데, 쿠바를 찾은 R.쿠더는 흩어져 있던 노인 연주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허름한 스튜디오에서 6일 만에 라이브로 녹음을 끝냈다고 한다.

대단한 점은 당시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됐으며, 1997년 그래미상 베스트 트로피컬 라틴 퍼포먼스 부문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독일 영화감독 W.벤더스에 의해 클럽 이름과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지금 소개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DVD)로 만들어져 이듬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쿠바 음악은 서정적인 선율과 복잡한 리듬을 특징으로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두들길 것이 있으면 모두 두들긴다”라는 그들의 속담처럼 타고난 리듬감을 보여준다. 이를 ‘아프로-쿠반(Afro-Cuban)’ 리듬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리듬과 스페인 계통의 음악이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 라틴 및 중남미 음악의 대표적일 수 있는 타악기적 성향은 분명 African의 토속성과 현지인의 노동요를 바탕으로 하는 그루브한 리듬악기들을 다분히 음악에 흡수시켰듯이 Afro-Cuban 역시 화려한 퍼큐션 세팅과 라이브를 자랑한다.

제3세계 음악이 대중화될수록 우리들의 관심은 조금씩 인스트루멘탈 및 악기장비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대된다. 생김새나 연주하는 방법마저도 보는 사람들에게 생소한 느낌은 분명히 이국적인 텐데도 일단 소리 자체를 듣자면 결코 동떨어진 소리들이 아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라이브를 참고로 대표적인 아프로-쿠반 음악의 타악기들을 소개한다.



**봉고(Bongos):** 높은 소리가 나는 두 개의 작은 드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구이(Changui)와 손(Son)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둘 중 소리가 높고 크기가 작은 것은 마초(Macho)라고 불리고, 소리가 낮고 크기가 큰 것은 엠브라(Hembra)라고 불린다. 쿠바에서 유래된 악기이며 봉고의 기본 리듬의 이름은 '마르띠요(Martillo)'이다. 마르띠요는 8분음표 4개로 이뤄지는데, 연주방법은 처음 세 박자(8분음표 6개)는 소리가 높은 마초를 두르려 주고, 마지막 박자인 4박(8분음표 2개)에서는 소리가 낮은 마르띠요를 치게 된다.



**플라베(Clave):** '플라베' 리듬을 연주할 때 쓰이는 두 개의 둥근 나무 막대 모양의 타악기이다. 플라베는 스페인어로 열쇠를 의미한다. 그만큼 음악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중요하다는 뜻이다. 플라멩코 스타일의 스페인 리듬에도 있고,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의 모든 종류의 음악에 나타나고 있다. 플라베는 크게 플라베 데 손(Clave de Son, 손 음악 스타일의 플라베)과 플라베 데 롬바(Clave de Rumba, 롬바 음악 스타일의 플라베)로 나뉘고, 이는 다시 각각 4/4와 6/8박자로 각각 나뉘져 전체적으로는 4가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



**콩가(Congas):** 아프리카 콩고의 원뿔 모양의 핸드드럼인 마쿠타(Makuta)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악기이다. 이후 여러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수많은 영향으로 변화를 거쳐 그 모양과 크기와 재질, 소리까지 매우 다양하다. 쿠바의 아프로-라틴 음악만큼 콩가의 연주기술을 정교화시키고 최고 수준의 연주기술로 사용한 음악의 예가 없었다. 즉, 콩가가 현재의 연주법과 역할을 하기까지에는 쿠바와 아프로-쿠반, 아프로-라틴 음악의 공이 지대했다.



**카우벨(Cowbell):** 카우벨은 그 모양과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락(Rock)과 팝(Pop) 등 대중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전통 민속 음악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봉고(Bongo)벨, 핸드벨, 맘보벨, 차차벨, 차랑가벨 등 음악의 연주 스타일에 따라 여러 가지 카우벨이 있다.



**구이로(Guiro)와 구이라(Guira):** 조롱박의 겉에 톱니모양을 내어서, 짧은 막대로 긁으면서 연주한다. 메렝게에 쓰이는 악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금속재질로 되어 있고 굵은 막대도 금속의 머리빗 모양이며 이름은 구이라이다. 구이로는 창구이와 손 음악 및 차랑가 음악에서 유래되어 현재 라틴의 대중 음악과 민속 음악 모두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손 음악에서는 구이로가 빠지면 음악에 무언가 빠진 느낌일 정도다.



**마라카스(Maracas):** 마른 가죽이나 호리병 속에 조약돌이나 씨앗, 쌀알이 들어있는 딸랑이 같은 악기로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초의 마라카스는 가죽을 말려 딱딱하게 만들거나 얇은 나무로 만들었다.



**셰케레(Shekere):** 구슬을 엮어 속이 빈 박을 싸서 만든 악기로서 셰케레 또는 체케레(Chekeré), 요루바 언어로는 아그베(Agbé)로 불린다. 크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데 큰 악기의 경우 아름다운 저음을 연주한다. 연주법은 흔들거나 손 사이에서 위아래로 튀기는 두 가지 방식을 섞어 사용한다.



**띪발레스(Timbales):** 드럼세트의 축약형쯤으로 보이는 띪발레스는 유럽 오케스트라의 팀파니(timpani)의 한 종류인 띪발레스 크리오요스(Timbales Criollos)에서 직접적으로 변형된 악기이다. 기본적인 구성은 지름 10~15인치의 드럼 2개, 즉흥연주 등을 위한 심벌즈(cymbal) 1개, 까우벨 2개, 나무로 만든 블록(woodblock)이 있다. 각각 구성부분을 더하거나 뺌으로서 다양한 띪발레스 구성이 가능하며, 모두 스탠드 위에 설치된다. 띪발레스 크리오요스는 아이티(Haiti)에서 1791년 혁명이 일어나면서 쿠바로 유입됐다.

간단히 아프로-쿠반 음악이 주로 쓰이는 악기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앞에 열거한 악기 외에 기본적인 베이스, 키보드, 색소폰, 트럼펫, 첼로 등 많은 악기들이 재즈의 빅밴드 형식처럼 무대 위를 펼쳐 앉아 있음은 라이브 공연과 레코딩 스튜디오를 보면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쿠바 음악의 쇠퇴기인 1950년대 즈음부터 하바나의 허름한 뒷골목에서 구두닦이로 살던 이브라힘 페레(Ibrahim Ferre)라는 초라한 노인에게 1990년 낯선 미국인이 찾아온다. 서두에 언급했던 미국인 기타리스트 라이 쿠더(Ry Cooder)이다. 라이 쿠더는 이브라힘 페레를 비롯, 이발사가 된 콤파이 세군도(Compay Segundo), 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 피아노를 쳐주는 피아니스트 루벤 곤잘레스(Ruben Gonzalez) 등을 한자리에 모으며,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뻔했던 전설의 음악가들을 모아 새로운 열정을 일깨운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라는 밴드가 부활하게 된 것이다.



[하바나 레코딩 스튜디오로 향하는 R.쿠더]

다큐멘터리적인 스토리 전개가 지겨워질 즈음, DVD는 이들의 흘러간 세월과 하바나 뒷골목의 허름한 스튜디오를 소개한다.

절친이며 기타리스트인 라이 쿠더가 쿠바 뒷골목의 사라져가는 '거장들'을 이야기해보자고 했을 때, 빔 벤더스(본 DVD의 영화감독)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평소 흠모해왔던 쿠바의 이국적인 문화호기심이었다. 때문에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은 '뮤지큐멘터리'라는 독특한 장르를 가지고, 쿠바 음악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쿠바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모습, 삶의 방식과 철학을 그려내면서 단순한 음악의 기록이 아닌 다큐멘터리로서의 역사를 기록한다.

어느 누구인들 프로듀서와 예술인들의 만남이 감동적이지 않겠나만은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재결합이란 어떤 누구보다 감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Someone 'ANGEL' said 'Come here' and play a record!"**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는 ‘이리와’ 함께 녹음하자고 말하더군.)**

젊은 R.쿠더의 이런 제의에 10대 중반 어린나이에 가수로 데뷔하여 쿠바의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페레르는 “난 이제 더 이상 구두를 닦지 않아도 돼, 매우 행복해”라고 답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필자가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은 대부분의 마니아들도 동감했겠지만,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피아노를 맡고 있는 루벤 곤잘레즈와의 만남이다.



[피아니스트 루벤 곤잘레즈의 연주 모습]

어린 발레리나들에 둘러싸여, 막내 손자만한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춤사위에 맞춰 연주하는 그의 모습은 분명 이제껏 들었던 어느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연주자이자 예술인이었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 이러저런 이유로 음악 판에서 밀려나, 구두닦이와 발레교습소 반주자로생애 첫 앨범을 냈고, 그들의 음악은 카네기홀의 오베이션(ovation, 기립박수)을 받기에 충분했다. 한 가지 후일담은 이 노인네(?)들이 카네기홀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우겨서(?) 공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카네기홀 공연 무대]

누군가는 이들의 음악을 듣고 “저렇게 잘하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 완벽하고 매혹적이야.”, 또 누군가는 “뽕짝스런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의 뭉뚱그림(맘보나 차차차, 탱고, 룸바 등)과 질편한 남녀상열지사적인 한물간 노인네들의 음악에 왜 열광하는 거지?”라고 말들을 한다.

이는 쿠바 음악의 재평가에서 비롯된 게 아닌 듯 싶다. 1990년대 재즈와 팝계에서는 쿠바 음악 등 남미 음악을 도입하여 재평가하게 됐고, ‘사탕수수 농장을 일구기 위해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의 리듬과 토착민 인디오의 전통 음악, 유럽 이민자들이 가져온 멜로디’가 합쳐진,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인 변종 음악으로서, 뽕짝스런 뭉뚱그림이 이전 남미 음악의 거대한 뿌리라고 함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이다.

### 공연 음향 및 현장 스케치

필자가 소개하고 있는 DVD는 “뮤직멘터리”라는 독특한 스타일로 이야기와 음악을 전개하고 있다. 때문에 공연장의 세세한 음향만이 아닌 현장의 이펙트보다 더한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무한 노력이 필요했다.

사운드트랙의 총 14곡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며, 그중 “Chan Chan” 등 몇 곡은 카네기홀 라이브를, 몇 곡은 하바나 뒷골목의 허름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들려주고 있다.

### 사운드트랙 SET LIST

- |                          |                             |
|--------------------------|-----------------------------|
| 1. Chan Chan             | 8. El Carretero             |
| 2. De Camino a La Vereda | 9. Candela                  |
| 3. El Cuarto de Tula     | 10. Amor de Loca Juventud   |
| 4. Pueblo Nuevo          | 11. Orgullecida             |
| 5. Dos Gardenias         | 12. Murmullo                |
| 6. Y Tu Que Has Hecho    | 13. Buena Vista Social Club |
| 7. Veinte Anos           | 14. La Bayamesa             |



[하바스 스튜디오 녹음실 및 공연장]

글을 쓰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다. 대부분의 마니아들은 알고 있겠지만,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보컬리스트인 이브라힘 페레(Ibrahim Ferrer), 피아니스트인 루벤 곤잘레스(Ruben Gonzalez), 기타와 백보컬을 맡았던 꿈뻐이 세군도(Compay Segundo)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다.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 밴드와 멤버들을 한 줄 한 줄 써내려 가는 것이 서글퍼진다.

그들의 사운드트랙 5번에 있는 Dos Gardenias(치자꽃 두 송이)라는 곡을 잠시 감상해보자.

Dos gardenias para ti

Con ellas quiero decir:

Te quiero, te adoro, mi vida

Ponles toda tu atenci&ocaron;

Que seran tu coraz&ocaron; y el mio

치자꽃 두 송이를 그대에게 줍니다.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서...

내 사랑.

이 꽃은 당신과 나의 심장이 될 거요.

Dos gardenias para ti

Que tendr&acirc;n todo el calor de un beso

De esos besos que te d&iacute;

Y que jam&acirc;s te encontrar&acirc;n

En el calor de otro querer

치자꽃 두 송이를 그대에게 줍니다.

내 입맞춤의 온기를 담아서...

이 꽃들은 당신 곁에서

나 대신 속삭일 거요.

나 대신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요.

A tu lado vivir&acirc;n y se hablar&acirc;n

Como cuando est&acirc;s conmigo

Y hasta creer&acirc;n que se diran:

Te quiero.

Pero si un atardecer

Las gardenias de mi amor se mueren

Es porque han adivinado

Que tu amor me ha traicionado

Porque existe otro querer.

이 꽃들은 당신 곁에서 호흡하며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에게 속삭일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해요' 라는 꽃들의 속삭임을

당신도 들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느 날,

아마도 내 사랑의 치자꽃은 죽고 말겠지요.

그것은 당신이 날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꽃들이 알게 될 테니까요.

## 글을 마치며

Times지는 몇 해 전 서울에 방문했던 아프로-쿠반 재즈의 거장 추초 발데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이며, 카스트로 정권 아래 많은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음악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망명하던 시절에도 쿠바에 홀로 남아있는 그만이 진정한 예술가”라고 평했다. 세계적인 명지휘자인 고 카라얀이 히틀러 정권에 타협하며, 이기주의적인 음악활동을 펼친 것에 비하면 사뭇 차원이 다르다.

시대적인 아픔과 역사적인 고통은 끝내 예술로 다가오며, 걸작이라는 칭호와 함께 모든 이들에게 진실이라는 단어를 심어준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비단 예술만이 아닌 모든 장르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 속에서 걸작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의 로망이자, 곧, 자신인 것이다.

필자는 본 DVD를 3번 넘게 감상하면서 다음에 또 보자라는 생각이 매번 들었다. CF 광고적인 색채의 쿠바 향구와 도시 뒷골목의 사실적인 그림도 한뼉했지만, 과연 “뮤직멘터리”라는 새로운 장르를 한국에서도 접목해 볼만하겠다는 나만의 욕심 때문이었다. 트로트(일명 뽕짝)라는 장르가 한국의 전통 음악인가? 발라드 가요는 과연 한국인의 정서인가?

한 나라에서 음악은 강처럼 흐르며, 어느 누구누구의 음악은 그 나라에 살아있으며, 박물관 구석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유물이 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누구의 음악은 새로운 음악이 아니지만 낡고 오래되고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다. 아무리 근사한 스타일의 세련된 새 옷을 입어도 그 옷의 오래된 촉감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처럼... 거기엔 땀과 추억, 역사가 담겨져 있다.



[고인이 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멤버]

### 참고

- Buena Vista Social Club 관련 인터넷 사이트  
티저동영상(<http://blog.naver.com/sojusawa?Redirect=Log&logNo=30003131959&vid=0>)  
<http://www.latinnet.co.uk>

### 참고 문헌 및 자료

The Essence of Afro-Cuban Percussion & Drum Set by Ed Uribe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재즈”

- Buena Vista Social Club best album  
(아바나 델 에스테 Habana del Este), (피오 멘티로스 Pio Mentiroso), (마리아 카라콜레스 Maria Caracolas), (엘루베 참고 Elube Chango)

- Buena Vista Social Club 역대 수상작  
제34회 전미 비평가 협회상(2000) 다큐멘터리상 Winner  
제12회 유럽영화상(1999) 유럽영화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 빔 벤더스 Winner  
제53회 에든버러국제영화제(1999) 관객상 빔 벤더스 Winner  
제25회 LA 비평가 협회상(1999) 다큐멘터리상 Winner  
제64회 뉴욕 비평가 협회상(1999) 논픽션상 Winner